

“당당하게 제안합니다!”

글_ 강원화_유비케어 홍보팀장



▲ 유비케어의 인트라넷 [제안합니다] 코너

“000님께서 제안을 올리셨습니다. 검토하신 후 등급을 결정해 주십시오.”

유비케어 직원들의 메일박스에는 이런 제목의 메일이 심심치 않게 도착한다. 직원들의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을 담아내며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유비케어의 ‘제안제도’를 소개한다.

인트라넷 통해 실천사항 수시 공유

제안제도는 사내 인트라넷에 개설되어 있는 ‘제안합니다’ 코너를 통해 진행된다. 여기에 직원들은 회사생활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새로운 제안사항이 등록되면 전직원의 메일박스로 등급책정을 요청하는 메일이 자동 발송된다. 등급은 A등급에서 D등급까지 구분되고, 1차 직원 투표, 2차 경영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이 확정된다. 채택된 내용은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실행여부를 공유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고,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팡팡 제안이벤트!’, ‘숨어있는 아이디어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수시로 벌인다.

제안의 내용은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신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사무실 환경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 주를

이룬다. 이 중에서는 채택돼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절약에 대한 실천이 가장 두드러진다. 일례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제안이 채택된 뒤 직원들은 모두 ‘개인컵’을 사용하고 있다. 종이 낭비를 막고 이면지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온 뒤 ‘이면지 전용 프린터’가 등장했고, 냉난방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온-오프 유무를 표시하는 ‘냉난방 점등기’가 설치됐다.

여러 제안들은 회사수익에 크게 기여하거나 당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용한 아이디어들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사업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확보의 차원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유비케어는 특허권 등 1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이면지 전용프린터



▲ 냉난방 점등기

책임 있는 대안 제시하는 문화

회사가 제안제도를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이 회사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직원들 입장에서든 단순히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지적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게 되었다.

유비케어의 제안제도는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값진 아이디어를 미래 회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KOVA